

여학
소식

1994년 4월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여학생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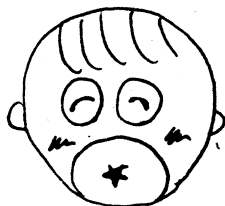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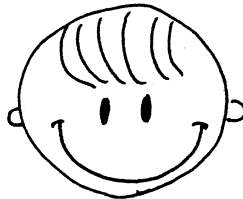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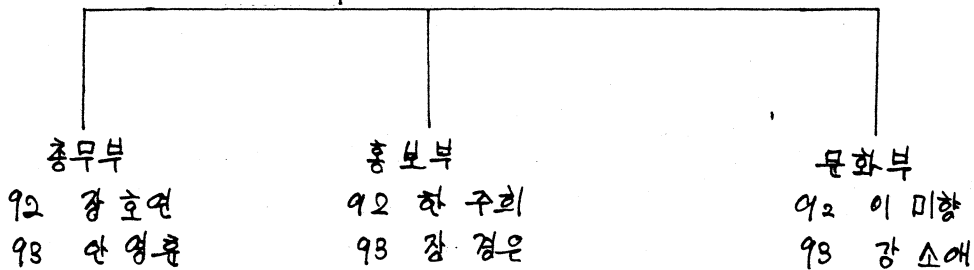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련, 개나리, 벚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무엇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가슴속에도 목련과
개나리가 피어났겠죠?

3월이 정신없이 지나갔다면, 이제 4월은 주위를 둘러 볼때가 아닐까요. 지금쯤 아마 무엇들
엔가 골몰하고 있을 때일거예요, 잠깐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 여학우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3월의 대면식, 대동학교, 전여대회, 그리고 여러가지 과 행사와 학교생활들. 때로 지치고 힘겨
운 일이었죠? 4월이 왔습니다. 지금은 꽃이 피어날 때입니다. 영문의 주인으로 봄꽃 향기와
같은 여러분의 향기를 세미나실과 인문대에 가득채워 보세요. 그럼 어느새 콧노래가 나올테
니까요. 앞으로 있을 여러분을 위한 자리에서 그 향기를 기대합니다.

여학생회는요 -

여학생회장 ('92 정은주)



 행사안내

- ◀ 4월 15일 연극반 공연(엘리베이터)
- ▼ 4월 중순 인문대 체육대회
- ◀ 4월 하순 여학생회 비디오 상영
- ▶ 5월 초순 영문과 모꼬지
 각 학년 여학생 모임
- ◀ 5월 중순 3학년 졸업여행
- ◀ 5월 말 대동제(주막, 바자회...)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대를 죄인처럼 부르며
 그대의 연약함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복종토록 이끌리며
 그대가 '여성' 답기를 바라면서
 그대를 집 안에 가두려 한다.
 오직 단 하나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우리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하고,
 우리의 역량을 다지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압제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다.
 우리는 모든 것의 개선을 시행할 것이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단지 우리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卍



근래에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해외 토픽성 기사가 하나 있다. 일명 '보비트 사건'으로 불리는 아내의 남편 성기절단 사건이다. 24세의 미국 여성 로리나 웨인 보비트가 26세의 술집 경비원으로 알려진 남편 존 웨인 보비트가 잠든 사이에 부엌칼로 남편의 성기를 잘라 들판에 버렸다는 것이다.

로리나 부인의 범행 동기는 남편의 강제 성폭행이었다. 로리나 부인은 남편을 상해한 혐의로, 남편 보비트는 부부 강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맞고소됐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비트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지않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외신을 이용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편 성기절단 사건의 일지가 소개됐다. 필리핀에서 술 취한 남편의 성기에 전깃줄을 연결해 감전사 시킨 사건, 터키에서 애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 등이 '보비트 사건'의 아류로 소개됐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언론의 선정주의가 한 사건의 본질을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 보비트 사건의 경우 사건의 본질은 '아내 강간'의 문제다. 아내 강간이 없었다면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아내 강간은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잘린 사건'으로, 보비트는 '잘린 남자'로, 또 로리나 부인은 '자른 여자'로 불리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폭력이 오고 간 사건인데도 부부지간의 성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건은 우스갯거리로 취급되고 있다.

또 남자가 성과 관련되어서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과장 해석해 세상이 크게 바뀐 듯이 호들갑을 떠는 분위기도 있다. 물론 이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잔인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그동안 여자들의 신체가 남자들의 성욕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돼왔던가를 생각해 보자. 아무리 남녀의 지위가 바뀌고 있다고 해도 보비트 사건 같은 것이 얼마나 더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희귀한 예외의 사건 몇개를 줄줄이 엮어서 선정적인 기사를 만들어 내는 와중에서 너무 많아서 뉴스거리도 되지않는 남자들의 성범죄와 잔인성은 가려지고 만다.

그런데 더 중요한 쟁점은 과연 이 사건이 남자의 신체적 상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 '남성 수난'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사건의 일차 원인이 부부간에 일어나는 강요된 성관계에 있었다면 아내의 폭력은 그 저항의 표현일 것이다. 부부 사이에 자기 의사 표시를 위해서는 이렇게 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여자들의 현실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보비트 사

건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자 수난'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사건의 일차 원인이었던 아내 강간에 대해서는 먼저 무죄 판결이 내렸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이런 해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어떻게 '아내 강간'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한창이었을 때 이 '아내 강간'이라는 대목이 문제가 됐다. 이 말은 워낙 술 마시고 아내를 때리는 습관이 있는 폭력남편들의 행패 속에 '구타 후 성관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입법을 맡아야 할 정치가 자신부터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알려고 하기도 전에 아내라는 말과 강간이라는 말을 붙여놓았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여성 운동가들 중에서도 '현실'을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이런 반응을 고려해 그 항목을 고려해 그 항목을 아예 빼버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여성을 옹호하는 편에서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도 성문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무척 뿌리깊다. 보비트 사건에서도 남성 중심의 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왜곡된 과장보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며 별 희한한 사건도 다 있다며 키득거렸고 미국 언론은 사람들의 이런 입맛에 맞는 세계적인 재미거리로 보비트를 스타로 만들어냈다.



*****탁아 후원회가 뭐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에다 높이 나무로 칸칸을 막아놓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는 대구 남산동 한 엄마의 사연인데 “참사랑”에 맡겨져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처 탁아소가 없어 맡기지 못한 90년 혜영, 용철 남매 질식사, 91년 인천 세쌍둥이 질식사등 단칸방에 갇힌 아이가 불에 타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체념과 동정 뿐일까요?

이제 이러한 복현학우의 요구와 따뜻한 마음을 받아 안아 현 비영리 민간 탁아소의 난점인 재정난과 인력난의 다소 해결을 위해 복현 곳곳에 자원 봉사자와 후원회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일주일에 한번 와서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학과와 취업준비로 바쁘신 고학번 학우들은 한 달에 2000원 이상의 회비로 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진소영(91), 김경숙(91), 최윤영(91), 정명희(92), 이주형(93), 오명희(93), 정승임(93), 정영옥(93), 김현정(93)학우가 후원회에 참여하여 4월 4일(월) 5시에 첫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문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면접 도중 성희롱 당한 여대생 '가해자 처벌' 개가

치밀한 조사작업으로 또다른 피해 사실 밝혀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면접관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대생이 홀로 가해자 처벌을 요구, 관계 기관으로부터 '가해자 징계'라는 확답을 받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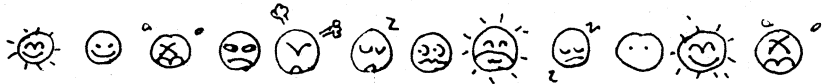
지난달 11월말 법률사무소 사원모집에 응시했다가 면접관인 변호사로부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과 성희롱을 당한 0대 법학과 최모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지방변호사에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지난달 30일 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씨의 진정내용이 사실임이 판단, 대한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6시를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아냈다.

최씨는 이를 계기로 지난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의 징계조치를 환영하며 변협측에 「공정하고 구체적인 징계조치 시행」, 「변협내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 체제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부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 지도 및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델마와 루이스>

두 여자의 일상탈출



얌전한 가정주부인 델마(지나 데이비스)와 착실한 식당 종업원인 루이스(수잔 새러든)는 들만의 주말여행을 떠난다. 델마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지 못했고 루이스는 남자 친구 지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소한 문제가 두 여자의 작은 반란에 짜릿함을 더해 준다. 곰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손전등과 총까지 준비한 두 여자의 일상탈출. 하늘은 푸르고 지붕 없는 자동차로 질주하는 그녀들의 머리칼은 마음껏 자유롭게 휘날린다. 집을 떠난 사실에 좀 지나치게 흥분한 델마가 바에서 강간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없었다면 즐거운 여행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 여행을 마친 둘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적어도, 델마를 강간하려다 실패한 남자가 더러운 욕설을 퍼붓지만 않았어도, 루이스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을 것이고 살인자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잠시라도(혹은 잠시만) 일상을 탈출하려고 떠났던 '여행길'은 영원한 '도피의 길'이 되어버렸다. 그 경황 중에도 사랑을 향한 델마의 환상은 여전히 천진하고 집요하다. 결국 시시덕거리며 하룻밤 사랑을 나눈 대가로 루이스의 전재산을 털리고서야 비로소 델마는 "머리가 상쾌해졌다." 둘은 멕시코로 향하고 이제 몰라보게 달라진 델마의 무용담이 중횡무진 펼쳐진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해줄 '새로운 땅' 멕시코로 가는 길은 어디쯤인가에서 끝난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징적 공간에서 이들은 영원한 탈출, 죽음을 선택한다. 

이 영화는 몇 가지 점에서 페미니즘으로 조망되고 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여자들의 우정이 그 하나다. 지금까지 영화에서 여자들의 우정이란 대개 남자가 끼여들어서 연적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에서 보여진 것처럼 남자같은 여자와 여자같은 여자가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는 묘한 동성애적 관계로 그려지는 것이 고작이었다. 암묵적으로 진정한 우정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델마와 루이스는 여자들이지만(!) 진정한 우정을 나눈다. 그들은 서로의 사소한 감정을 존중하며,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신뢰한다. 죽음까지도 둘이 함께 선택할 만큼 전면적이고 깊은 인간관계로서 이들이 보여주는 우정은 숙연할 정도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바의 여급이 보여주는 자매애 정신도 빛나 보였다.

다른 하나는 델마의 변화다. 영화가 시작할 때 '여보'하고 불러놓고 "주말에 여행갔다 올게요" 하는 말이 차마 안 떨어져서 "저녁에 뭐 해놓을까요?" 하던 델마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총을 들고 그랜드캐니언 절벽으로 차를 몰아 뛰어내릴 정도이니 그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겪었겠는가. 델마의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자의건 타의건 사랑대신 자신을 선택했을 때부터였다-는 현대 여성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이미 페미니즘은 (적어도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충분히 유행하고 있다. '델마와 루이스'도 페미니즘, 여성영화라는 관심을 모을 만하다. 여성영화란 특수한 주제를 다루는 하나의 장르로 한정될 수 없는, 구태여 말하자면 인간관, 세계관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하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보면 여성영화 아닌 영화가 없다. 그렇다고 특수한 주제인 여성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는 여성영화가 필요없다는 건 아니다. 그런 영화는 되도록 많이 그리고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영화가 '여성들만'의 문제를 따로 떼어내서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여성문제라는 것이 여타 다른 사회문제들과 필연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현실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고작해야 여자들 한탄이거나 히스테리에 불과하며 나아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팔아먹는 상품일 수 있다. 그렇다면 '델마와 루이스'는 어느 쪽일까?



영 화



올란드

원작 버지니아 울프

감독 샬리 포트, 주연 킬다 스윈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로부터 4백년 동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겪으며 살아온 올란도의 이야기를 독특한 형식으로 다룬 페미니즘 영화

썬더리 리스트

감독 스티

븐 스피버그, 주연 리암 니슨, 벤 킹슬리, 랄프 피네스

아카데미상 12개부문 후보에 오른 스피버그의 야심작. 나찌의 대량학살 계획으로부터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낸 오스카 썬더리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성 흑백영화. 스피버그가 10년 동안 준비한 185분작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독 짐 제프리, 주연 다니엘 데이 루이스, 짐사 톰슨

올해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 수상작. 1970년대 일어났던 '4인의 길포드 사건'을 영화한 작품.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신인 제리 콘론(다니엘 데이 루이스 분)은 74년 런던 길포드가에서 일어난 폭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아버지마저 사건에 연루돼 종신형을 받게 된



다. 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눈물겨운 투쟁과 아버지와 아들의 뜨거운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

펠리칸 브리프

원작 존

그리삼, 감독 알렌 J. 파쿨라, 주연 덴젤 워싱턴, 줄리아 로버츠

두명의 대법원 판사가 의문을 죽음에 당하자 여법학도인 다비쇼(줄리아 로버츠 분)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문서 '펠리칸 브리프'를 작성하게 된다. 현대통령의 강력한 자금후원자가 개입한 사건임을 밝히는 이 문서로 인해 다비쇼는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만 한 민원기자 그레이 그랜섬(덴젤 워싱턴)의 도움으로 진실을 파헤친다.

패왕별희

감독 첸 카

이거, 주연 장국영, 장풍의, 공리

올해 칸느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2백년 역사를 가진 북경 오페라단의 레파토리 중 하나인 '패왕별희'의 두 배우 초패왕 역인 쥘산과 애첩 우희 역인 데이의 비극적 사랑이야기



신 간

문 학

미라보 다리

말라르메, 구르몽, 보들레르, 랭보 등 프랑스 유명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놓은 시집. 서울여대 오종자 교수가 번역했다. 정우사/3천8백원

작은 마녀의 사랑

영국의 여류작가 페이 웰던의 장편소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의 재능을 개발하고 성형수술을 해 매력적인 미녀로 변신하는 가정주부의 이야기. 도서출판 삼천리

수 필

아래층 제수씨

위층 시아주버니

전신마비장애 시인인 임종욱 씨가 아래, 윗층에 함께 살게 된 제수씨와의 우정을 일기형식으로 쓴 수기. 동아일보 출판부/6천원

어 린 이

왕소비와 참소비

어린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어린이들이 돈이나 시간, 자원 등 우리에게 주어진 유형, 무형의 가치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동화를 통해 알게 해 주는 경제동화집. 동아출판사

“ 여 학 생 회 ”